



생명 나눔의 사랑과 봉사 실천 뜻 깊은 헌혈 행사 열려

한국건강관리협회(회장 이순형)는 대한적십자의 이동 헌혈차량을 이용해 1월 21일 본부와 서울서부지부 직원을 대상으로 헌혈 행사를 실시하였다.

이번 헌혈행사는 최근 혈액공급 부족으로 인해 병원에서 수술이 연기되는 등 환자 수혈용 혈액공급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, 혈액부족 사태가 조기에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개되었다.

2008년에는 본부 및 서울서부지부를 시작으로 전국 15개 시도지부에서도 '헌혈의 날'을 지정해 정기적으로 직원들이 자발적 참여를 할 예정이다.

특히 이번 헌혈행사부터는 해외여행이나 거주 지역(말라리아 위험지역)으로 인해 전혈헌혈을 할 수 없는 경우 직접 가까운 혈액원을 방문, 혈장 성분헌혈을 실시하여 눈길을 끌었다.

건협은 2007년부터 헌혈행사를 실시하고 있는데, 혈액부족 상황과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위해 앞으로도 사랑의 헌혈행사를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다. 🌐